지원 대학 4~5개 설정 '맞춤 공부'를

매월 실시하는 모의수능 백분위 변화에 주목해야

■수능 대비 전략

대학입시전문기관들은 27일 2009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 거의 매월 실시되는 모의수능에서의 백분위 변화에 주목하며 대비전략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지원 대학 4~5개 설정해 맞춤식 공부=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등의 다양화로 대학 혹은 같은 대학 안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라 반영영역이나 과목, 반영비율, 가중치 등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등을 고려해 목표 대학 및 학과를 4~5개 정도 선정해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과 과목, 점수 반영비율에 맞춘 학습이 효과적이다.

목표 대학 및 학과 선정시 자신의 성적에 유리한 전형요소가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보면서 대학보다는 학과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

◇모의수능 백분위 변화에 주목=수험생들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모의수능의 영역별 백분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올 3월 첫 모의고사부터 자신의 백분위가 매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 수능 준비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탐구는 4과목 선택해 고난도 문항 대비=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대부분 과목이 난이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중위권으로 갈수록 과목간 점수 차이가 적게 난다.

선택과목별로 대부분의 문항은 평균 난이도가 유지되지만 상위권의 변별력을 위해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소수 문항이 동시에 출제됐기 때문이다.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과목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 3과목만 준비하기보다 4과목을 모두 선택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모집에 지원해도 수능 준비=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상당수 학생이 수능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기준이 있으므로 수능이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대학별고사라는 변수가 있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정시까지 고려해 수능도 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영역·선택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범위

구분 영역		문항수	출제범위(선택과목)
언어		50문항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택1)	가형	30문항 (수학Ⅰ-12문항, 수학Ⅱ-13문항 선택 5문항)	수학Ⅰ+수학Ⅱ+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과목 중 택1)
	나형	30문항	수학Ⅰ
외국어(영어)		50문항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과학/직업탐구(택1)	사회탐구	과목당 20문항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4
	과학탐구	과목당 20문항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 최대 택4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 가능
	직업탐구	과목당 20문항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2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문항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택1

■수능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소요 시간)	문항수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10까지				
1	언어	08:40~10:00 (80분)	50	듣기 문항 5개 포함 08:40부터 13분 이내
휴식 10:00~10:20 (20분)				
2	수리	10:30~12:10 (100분)	30	단답형 30% 포함
중식 12:10~13:00 (50분)				
3	외국어 (영어)	13:10~14:20 (70분)	50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0분 이내
휴식 14:20~14:40 (20분)				
4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56 (126분)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 뒷면에 명기된 탐구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시험:4과목 선택자	14:50~15:20 (30분)	20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20~15:22 (2분)		
	시험:3~4과목 선택자	15:22~15:52 (30분)	20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52~15:54 (2분)		
	시험:2~4과목 선택자	15:54~16:24 (30분)	20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24~16:26 (2분)		
	시험:1~4과목 선택자	16:26~16:56 (30분)	20	
휴식 16:56~17:15 (19분)				
5	제2외국어/한문	17:25~18:05(40분)	30	듣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8과목 중 택1

고교 2·3학년 심화과목 중심 출제

■출제 방향·세부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09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전년과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교 2·3학년 심화과목 중심 출제=수능 출제범위는 고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한다. 심화선택 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선택과목과 관련된 국민공통교육기본과정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언어 및 외국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해 출제되며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돼 가형의 경우 수학 1 12문항, 수학 2 13문항을, 선택과목에서 5문항을 출제한다. 나형의 경우 수학 1에서 30문항을 출제한다.

◇문항수 및 배점=영역별 문항수는 언어 50문항(원점수 만점 100점), 수리 30문항(원점수 만점 100점), 외국어 50문항(원점수 만점 100점), 사회/과학/직업탐구 20문항(원점수 만점 50점), 제2외국어/한문 30문항(원점수 만점 50점)이다.

◇성적 통지는 12월 10일까지=수능 시행 공고는 7월 7일 중앙 일간지를 통해 실시하고 원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1~17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원서 처리 및 수험번호 부여는 9월 23일~10월 13일, 수능 시험일은 11월 13일, 채점은 11월 14일~12월 9일이며 성적 통지는 12월 10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와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된다.

영역 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해 선형변환에 의한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백분위는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근거해 산출한뒤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 영역 과목별 등급은 표준점수를 근거로 전년과 같이 9등급제로 표기된다. /연합뉴스

외국어, 어휘·어법 실력 키워야
수리, 가형 어렵고 나형 쉬울 듯

■영역별 대비 전략

대학입시전문기관들은 27일 수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사문제에 대비해 평소 사회적 쟁점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언어 "주요 문학 작품 정리해둬야"=언어는 지난해와 같이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학 부분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작품들을 정리하고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문학 지문도 철저히 점검해둬야 하며 표면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아니라 상황을 토대로 이면에 내포된 내용을 분석하는 학습이 바람직하다.

비문학은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평소 경제, 과학, 기술 지문 등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함께 도표, 그래프 등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 모의고사를 통해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점검하면서 듣기, 쓰기, 어휘, 어법, 읽기 영역별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리 가형은 어렵고 나형은 쉬울 듯=올해 다시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활용되면서 표준점수 조정을 위해 가형은 어렵게, 나형은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리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수학적 원리와 개념들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풀이의 양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정확히 알아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형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공간도형과 벡터, 정적분의 응용 단원 등을 집중 정리하고 나형은 정답률이 낮은 확률과 통계, 수열의 극한, 지수와 로그 등을 철저히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 "어휘·어법 실력 키워야"=최근 수년간 비슷한 난이도가 유지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문항이 3~5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독해는 어휘와 어법 실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빈칸 추론과 장문 이해 등을 반복 연습하고 시간을 고려해 가면서 EBS 문제를 통해 실전문제 풀이연습을 충분히 해두는 것도 좋다.

◇사회탐구 "중요 개념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해야"=표준점수 조정에 따른 과목별 난이도 조절이 예상되므로 고난도 문제에 대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

중요한 개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철저하게 알아 둬야 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표로 작성해 두면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어재연 수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문제 등 시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교과 지식과 연결해 시사문제를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과학탐구 "데이터 분석 능력 키워야"=표준점수 조정에 따른 과목별 난이도 조절이 예상되므로 각 과목별로 어려운 탐구형, 실험 관련 문항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별로 핵심 개념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으며 데이터를 분석해 해석하는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그래프·표 등을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공부도 중요하다.

탐구 설계 및 수행과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합뉴스